

임종석 출마 임박?...양정철 원장 “호남선거 총괄 요청했다”

전략공천 통해 호남 출마 가능성 관심 집중 “광주서 출마해 정치적 재기 나서야” 목소리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3일 4·15 총선 불출마 등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호남 지역 선거를 총괄하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임 전 실장이 호남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의지는 여전히 강고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출마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에게 호남 선대위원장을 권유했는지 여부를 묻자 “임 전 실장에게 따로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호남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출마나 불출마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라고만 말했다.

양 원장은 “다만 (임 전 실장이)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수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잘 대응하고 난 다음에 당 요청을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이) 당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니, 그 연장선상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겠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양 원장이 호남 선거대책위원장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임 전 실장이 전략공천을 통해 호남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호남의 차기 주자인 임 전 실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

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광주에서 출마, 정치적 재기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의지는 아직 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 전 실장을 만난 바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임 전 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오히려 불출마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이미 총선 불출마를 밝힌 바 있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를 번복한다면 정치적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읽혔다”고 밝혔다.

그는 양 원장의 호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직 제안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에게 총선에 불출마한다면 호남 선대위원장이라도 맡아 당에 기여해달라는 것”이라며 “양 원장이 임 전 실장에게 정치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측근도 “임 전 실장에게 호남 출마를 권유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넘어 폭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 뜻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임 전 실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호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서울 출마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호남 선거대책위원장직 고사를 계기로 광천을 등 서울 지역구 출마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와는 상의 없이 양정철 원장이 개인적으로 임 전 실장에게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권유한 것”이라며 “이를 이 대표에게도 확인했다”고 밝혀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략을 놓고 이 대표와 양 원장 사



문 대통령 신종코로나 총력대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략공천 지역과 투입 인사 등을 놓고 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속도 내는 안철수 신당...창단추진단장에 이태규·김경환

이달 중순 발기인대회 비례의원 '제명' 의결 주목

‘안철수 신당’의 창당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안철수 전 의원은 3일 창당추진기획단장에 이태규 의원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를 임명하고, 7개 시·도당 창당 책임자를 선임했다. 또 이달 중순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는 목표로, 정당의 창당은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발기인 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 중앙당 창당 순으로 이뤄진다.

안 전 의원은 창당 작업 착수와 동시에 각 시·도당 창당 책임자를 지정해 빠른 속도로 창당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단장 선임 이후에는 기획단 구성, 인재영입, 당명 선정 등의 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은 전날 신당 추진 계획을 밝힌 뒤 곧장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창

당 발기인 신청과 정책 제안, 인재 추천을 접수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당 색깔로 정해진 주황색을 기반으로 군더더기 없이 꾸며졌다. 햇볕(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최저 임금제·대입 정책 등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시·도당 창당 책임자는 김삼화 의원(서울)·이동섭 의원(경기)·최원식 전 의원(인천)·신용현 의원(대전)·김수민 의원(충북)·김종로 의원(세종)·권은희 의원(광주)이 맡았다. 대부분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바른미래당에서는 손철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두고 다시 내용이 벌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0명 중 지역구

의원은 7명,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모두 탈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비례대표 의원 9명이 뜻을 모을 경우 제명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안철수계 중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의 ‘탈당 결심’도 이러한 시나리오에 힘을 더한다.

권 의원이 탈당하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소속의원 20인’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선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 러시’가 이뤄질 경우 안철수계 비례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가고, 일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일부 호남 의원들의 경우 호남계 정당에 합류할지 여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5·18평화 사과부터 하라” 대안신당, 김무성 광주 차출설 비난

자유한국당이 김무성 의원의 광주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안신당이 반발하고 있다.

대안신당은 3일 김정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무성 의원의 광주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치를 회화화 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힘지인 호남 공약을 명목으로 내걸고 있다지만 이미 20대 국회에서 호남지

역에 이정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을 당선시킨 적이 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처지에서 다시 당내 중진인 김무성 의원을 광주에 투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 일각에서 김무성 의원의 부친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며 “차라리 박근혜 탄핵까지 불러온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석고대죄와 5·18 평화에 대한 공식 사과 재발방지

를 앞세우는 것이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은 한국당의 힘지 출마 선거 전략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내의 공공한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국당의 면피용 선거 전략으로 김무성 의원의 광주 차출론을 꺼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한 공관위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의 광주 차출을 제안하며 “수도권이 아닌 호남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선거를 이끌게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의 선전은 광주 옛 전남방직 장업주 김용주 전 회장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